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18>

2001. 4. 20

KIEP 북경사무소

中國 社會科學院, 금년도 경제성장률 7.8% 전망

1. 개요

□ 中國 社會科學院의 ‘中國經濟形勢分析和 豫測’ 課題組는 2001년 春季報告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7.8%내외로 전망하였음.

- 춘계보고는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예측과 함께 2000년 주요 경제지표 및 특징, 문제점 등 중국 거시경제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, 현행 경제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.
- o 특히 최근 중국의 확대재정정책과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▲농민 수입 증대 정책 지속 추진, ▲확대 재정정책 효율성 제고, ▲적극적인 경제구조조정 실시, ▲금융체제 개혁, ▲사회보장체제 개선, ▲WTO 가입 준비, ▲구조 고도화를 통한 공급부문 개선 등을 제안함.

2. 금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 및 2000년 거시경제 분석

□ 주요 경제지표의 예측 내용

- 금년 경제성장률이 7.8% 내외에 달하는 동시에 1차산업 생산증가율은 2.4%로 최근 2년동안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, 2차산업과 3차산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9.4%와 7.7%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- o 2차산업중 경공업과 중공업 생산증가율은 각각 8.8%와 10.0% 내외로 예측하였음.
- 고정자산투자는 8.2%(실질) 증가한 약 3조 5,700억 元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
- 금년도 물가지수는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 등 내수확대에 힘입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- o 同 과제조는 금년 소매물가 상승률은 0%,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%, 생산자물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음.
- 소비자소매총액 증가율은 도시 주민의 수입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년 수준인 10.4%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 다만 농촌 주민의 소득증가율은 여전히 도시주민의 그것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.
- 그밖에도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 금년 금융시장은 안정적일 것으로 분석하였음.
- o 금년 수출입 증가율은 작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, 무역흑자는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
□ 작년도 거시경제 실적에 대한 분석

- 2000년 경제성장률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8% 시현
- o 주민 및 기업의 소비심리가 살아나 각종 물가지수가 상승 국면으로 반전
- o 소비의 GDP 기여도가 2000년 상반기 50%에서 연말 60%까지 상승하였음.
- o 비국유부문 투자 급증, 2000년 집체경제의 투자 증가율은 9.2%, 일반 개인투자 증가율은 9.5%로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9.3%와 비슷하거나 상회함.
- o 수출입 모두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, 무역 흑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
- o 2000년 국유기업 이윤 및 정부 세수수입 증가율이 최근 몇 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.
- 2000년 중국경제가 거둔 성과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하였음.
- o 국채발행 등 확대 재정정책이 국내 수요 유발, 경제의 양호한 성장을 견인
- o 기업개혁에 따른 이윤 증가, 지속적인 경제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정착
- o 미국, 일본, 유럽 및 아시아 지역 경제의 안정과 발전 등 양호한 대외경제 환경으로 중국의 수출입 여건 개선

3. 문제점 및 개선책

□ 금년도 중국경제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며,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음.

- 첫째, 금년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,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, 유럽 경제 부진 등 세계 주요국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함.
- 둘째, 국유기업의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, 이는 채권의 주식전환, 대출 금리 인하, 수출 증치세 환급 등 단기적인 정책처방에 기인하며 구조적인 개혁은 아직 미흡함.
- 셋째, 최근 중국경제 성장은 주로 확대 재정정책에 기인하고 있는데, 재정적자의 누적이 향후 재정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것임.

□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주의해야 할 것임

- 농업 구조조정 및 농민수입 증대. 특히 농민 실질소득은 1996년 전년대비 9% 증가한 이래, 1999년 3.8%, 2000년 2.1% 증가에 그쳤는바, 농민소득 증가세 둔화는 단기적인 경제성장 및 개혁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사회 불안 요인이 되기도 함.
-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. 경영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만, 국유 및 국유주식회사 중 1/3은 여전히 적자상태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 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조가 필요함.
-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비국유부문 및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어야 함.
 - 특히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는 중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고,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.

□ 확대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실시와 물가 안정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.

- 최근 3년간 중국정부는 국채 발행 증대 등 내수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해 왔는데, 1998년 이후 3,600억 元의 장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며, 국채 발

- 행을 통해 투입된 각종 자금은 7,500억 元에 달하고 있음.
- 1999년말 국채 발행 누계액은 GDP의 12%에 해당하는 9,800억 元에 달하고 있으며, 199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2.1% 수준임.
 - 10·5 계획기간(2001~2005년)에도 중국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바, 재정지출 확대가 국내수요 확대, 주민 수입 증대, 사회보장제도 개선, 불량채권 처리 및 국유기업 개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.
 -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% 이내로 억제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, 관건은 재정지출 및 국채 발행 자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에 있음.
 - 한편,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, 그동안 중국은 수요와 공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부양시 몇 차례 물가 급등을 경험한 바 있음.
 - 지방정부 및 기업의 중복 투자와 같은 비합리적인 투자, 기업과 은행내 존재하는 연성예산제약 등이 물가 불안을 부추겼는바, 10·5계획기 첫해인 금년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1/4분기 GDP성장률 8.1%

- 邱曉華 통계국 부국장은 국무원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의 전반적인 둔화에도 불구하고 1/4분기 중국의 국민경제가 양호한 추세를 보인다고 말함.
 - 초보적인 추산에 의하면 1/4분기 GDP총액은 19,895억 元으로 불변가격에 따라 계산할 경우 전년동기대비 8.1% 성장함.
 - 2차 산업의 증가치는 9.5% 증가한 10,972억 元으로 전반 경제의 안정 성장을 지지하는 주요인 임.
- 1/4분기 경제운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.
 - ① 경제운영의 질적 제고 및 공업기업 이윤의 대폭적인 증가
 - 1-2월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은 45.8% 증가한 483억 원,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은 62.3%

- 1-2월 적자 감소율은 12%, 국유 및 국유지배지주 공업기업의 적자 감소율은 18.6%
 - 1/4분기 국내제정수입은 27.9% 증가한 3,682억 원
- ②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안정 발전
- 1/4분기 농업 증가치는 3% 증가한 1,556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 유지
 - 운수·체신업의 빠른 증가 및 국내시장과 부동산업의 안정 발전에 힘입어 1/4분기 3차산업의 증가치는 7.4% 증가한 7,366억 원, 그중 운수·체신업의 증가율은 8.5%, 상업은 7.9%, 부동산업은 6.7%
- ③ 공업생산의 빠른 증가
- 1/4분기 전국 공업 증가액은 11.2% 증가한 5,868억 원, 국유와 주식제 및 3차기업의 생산증가율이 높음.
- ④ 고정자산투자 급증
- 1/4분기 전사회 고정자산투자는 12.4% 증가한 3,878억 원, 그중 국유 및 기타경제유형 고정자산투자는 15.1% 증가한 2,560억 원, 집체투자 증가율은 14.1%, 개체투자 증가율은 3%
 - 1/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갱신개조와 부동산 개발투자의 빠른 증가와 공업성투자의 빠른 회복 및 서부지역 투자증가율이 동부와 중부에 비해 각각 6.2%포인트와 16%포인트 높은 23.4%를 기록하는 등의 특징을 보임.
- ⑤ 국내시장판매 활발 및 물가 안정
-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10.3% 증가한 9,256억 원, 그중 도시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은 11.5%, 농촌 소비재소매총액은 8.3%
 - 도소매 무역업과 요식업의 증가율은 각각 11%와 16.1%
 - 1/4분기 전국 주민소비자물가는 0.7%
- ⑥ 수출입의 안정 증가 및 국제수지 양호
- 1/4분기 수출입총액은 15.9% 증가한 1,138억 달러, 그중 수출은 14.7% 증가한 593억 달러, 수입은 17.3% 증가한 545억 달러
 - 1/4분기 외국인직접투자의 실질이용액은 11.7% 증가한 79.8억 달러임.
 - 인민폐환율이 안정되고 국가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
- ⑦ 도·농주민의 소득 지속적으로 증가
- 1/4분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4.7% 증가한 1,846원, 농민의 1인당 현금수입은 4.8% 증가한 636원(經濟日報, 2001. 4. 18)

2. 1/4분기 통화공급량 13.2% 증가

-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금년 1/4분기중 내수확대와 경제발전 촉진 및 경제구조 조정을 지원하는 가운데서 안정된 통화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함.
- 3월말 현재 M₂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3.2% 증가한 13.9조 원, M₁잔액은 17.4% 증가한 5.3조 원
-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14.7% 증가한 12.9조 원, 1-3월 누계 예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,446억 원이 증가한 5,400억 원
- 그중 기업의 예금잔액은 4.5조 원, 도·농 주민의 예금잔액은 6.7조 원
- 3월말 현재 전체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잔액은 13.9%(불변기준) 증가한 10.2조 원, 1-3월 누계 대출액은 3,067억 원
- 3월말 현재 국가 외환보유 잔액은 12.1% 증가한 1,758.5억 달러, 1-3월 누계 증가액은 102.7억 달러
-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환율은 8,2779로 안정 지속(經濟日報, 2001. 4. 18)

3. 1/4분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전년동기대비 19.8% 증가

-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1/4분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각종 외화예금은 전년 동기대비 19.8% 증가한 1,292.5억 달러
- 1/4분기중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액은 4.98억 달러
- 3월말 현재 기업의 외화예금 잔액은 12.9% 증가한 456.3억 달러, 주민의 외화예금 잔액은 24.4% 증가한 740.0억 달러
- 3월말 현재 각종 외화대출잔액은 836.1억 달러(經濟日報, 2001. 4. 18)

4. 信達 AMC, 중국 최초로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금융자산 처분에 성공

- 금년 4월 3일 현재 信達資產管理公司가 蚌埠熱電廠의 부실금융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해외에서 유치한 투자액 1,400만 달러가 전액 조달되어 금융자산관리공사의 부실 금융자산 처리사상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음.
- 蚌埠熱電廠은 안회성 최대의 열병합발전소로, 자체자금의 부족, 부채과중 및 관리부족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는바, 1998년말 동 기업의 자산부채율은 92.52%, 누계 적자는 7,671만 원, 건설은행에서 빌린 원리금 총액은 1.73억

원이었음.

- 信達자산관리공사는 1999년 9월 20일 건설은행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인수, 2000년 3월에 외국측과 중외합자, 합작경영, 자본재구성, 자산개편 등 내용의 일괄 계약을 체결했음.
- 내용: ① 미국연합에너지회사(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)와 美國超洋金融公司 및 蚌埠熱電廠이 공동으로 중외합작경영회사인 安徽新源熱電有限公司를 설립, 외국측은 현물환으로 출자(70%지분)하고 중국측은 기계설비와 토지 및 공장건물 등 자산으로 출자(30%지분) ② 외국측의 출자금은 주로 信達公司의 채무상환에 사용 ③ 蚌埠熱電廠에 대한 信達公司의 나머지 채권은 대부분 중외합작경영공사에서 부담, 정상적인 대출금리에 따라 이자계산을 함과 동시에 새롭게 분할상환계약 체결
- 현재 蚌埠熱電廠프로젝트는 합작회사 운영이 양호하고 자산부채율이 33.3%로 하락 및 금년 2월말 현재 누계 이윤이 920만 원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며, 信達자산공사는 금년 4월 3일까지 채권의 원리금 8,512만 원 회수, 나머지 채권도 우량채권으로 전환되었음.(金融時報, 2001. 4. 20)